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체육

2023. 04 Vol. 53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3**
2023.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부산체육의 미래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이슈 & 포커스
부산체육의 역사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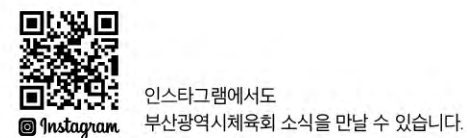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3. 04 Vol. 53



발행일 2023년 4월 17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5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 체육 발전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08
영광의 인물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양원백 부회장

12
부산체육의 미래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16
스포츠 이야기
지방체육 발전방안
부경대학교 김대회 교수



04

20

인 인화 소통

20
뉴스포츠 소개
가야여자중학교 넷볼팀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

26
달려라 부산체육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노블인라인클럽

30
이슈 & 포커스
강인한 정신력의 표본, 부산체육
부산체육의 역사

34
부산스포츠 기자단
제21회 성우하이택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

지 지식 나눔

36
스포츠 PLUS +
인간의 움직임이 스포츠가 되다
육상

40
스포츠 Job
체육인의 새로운 인생 출발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

42
건강 라이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통풍(痛風)

44
스포츠 정보 알림
국민체력 100

업 업글 소식

48
문화 공간
책 소개 “세이노의 가르침”

50
BSC 뉴스
-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52
회원단체 소식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9
공공스포츠클럽 소식



26



30

부산 골프, 세계 속으로 훌인원!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제11대 회장,
(주)우진상운 대표이사 최광식



부산 골프는 몇 해 전 아마추어 신분으로 LPGA에서 준우승한 최혜진 선수에 이어, 전국 초등부 대회를 휩쓴 골프 신동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부산에서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운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다

“훌인원을 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날 파 파이프 홀에서 투온, 그러니까 퍼트로 이글도 했어요. 6월이라 잔디는 한창 자라있었고 거리가 엄청 멀었기 때문에 아마추어에겐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공이 잘 맞았어요.”

최광식 회장은 1998년쯤 지인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다. 처음 골프를 접했을 때는 스코어를 만드는 데 재미를 느꼈다. 그는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해 입상까지 했을 정도로 골프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40대 중 후반이 되었을 때는 스코어보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골프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 않잖아요. 언젠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골프 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골프를 계속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니려면 몸도 건강해야 하고, 친구도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골프는 그에게 운동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최광식 회장이 현재 자주 찾는 컨트리클럽 회원의 평균 연령은 76세라고 한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만 하느라 가지지 못한 여유를 이제는 편하게 누리며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 소일 삼아 필드 위를 걷고 웃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 없다고. 이러한 이유로 진심으로 골프를 좋아하게 된 최광식 회장은 부산광역시골프협회 회장직을 맡은 후 스코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라운드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고, 골프를 알리는 입장에서 골프장 시설이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다고 한다.

튼튼한 뿌리,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1986년에 창립한 부산광역시골프협회는 백제갑 회장을 시작으로 최철관, 우방우, 유재진, 김중웅, 황익, 이길안 회장 등을 거쳐 제11대 최광식 회장에 이르렀다.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역대 회장직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수의 기업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 등 그 이력이 화려하다. 그중 (故) 백제갑 회장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골프 브랜드 팬텀의 모기업인 동성화학공업(주) 대표였는데, 당시 이 회사는 우리나라 골프업계 최초로 골프볼을 생산했다. 이처럼 초대회장부터 골프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시작된 만큼 부산광역시골프협회는 오래전부터 타 협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골프협회가 대회도 가장 많이 열고, 항상 모든 부분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협회에서 저희 협회의 운영 방식이나 사업 등을 배우러 오기도 해요.”

최광식 회장은 협회가 오래도록 굳건히 유지되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창립 멤버였던 김종규 전무이사 등 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광식 회장 역시 회장직에 오르기 전 협회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동호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도
협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회를 통해 골프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그가 회장직에 오르며 다짐한 것이 있다. ‘부산광역시골프협회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협회로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학생 체육과 전문 체육을 육성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부산 골프가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우수 선수 발굴 등으로 하나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성과를 얻다

지난 2022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은 종합 8위에 올랐는데, 종목별 순위를 보면 골프는 무려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초등부에서 부산이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쓴 데 이어, 주니어 국가 상비군도 배출했다.

“이 정도의 성적을 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

온 것을 보면 앞으로가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입증되면 곧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광식 회장은 취임 때부터 유소년 체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공표해왔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골프장의 관심,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부산컨트리클럽과 해운대컨트리클럽이 뜻을 모아주어 주니어 선수들에게 무료로 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는 골퍼가 많고 골프장이 도심 가까이에 있다 보니 이용자가 많아 부킹 자체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학교에 골프부가 있다 해도 골프는 결국 비용, 시간 등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운동이다. 그러니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아주 큰 힘이 된다.

“국위를 선양한 부산 출신의 골퍼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LPGA에서 활약하는 최혜진 선수를 비롯하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한 남·여 선수들이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심시일반 선수를 지원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남자프로골프팀을 운영하는 우성건설에서도 부산주니어선수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컨트리클럽이나 해운대컨트리클럽처럼 부산 소재 컨트리클럽의 관심과 더불어 특히,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골프협회는 선수 발굴 및 동호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제37회를 맞은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대회와 주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동호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도 협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회를 통해 골프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광식 회장은 자신이 골프를 좋아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골프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마지막까지 골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찬란한 펜싱 인생은 지금도 계속된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양원백 부회장

펜싱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체형을 가진 한 소년은 불리한 체격 조건을 이겨내고 40년 넘게 부산 펜싱 선수를 지도하고 있다. 부산 펜싱 역사와 함께 걸어온 양원백 부회장의 이야기다.

노력으로 거머쥔 실력

어린 시절 영화를 통해 본 펜싱에 단숨에 매료되었던 양원백 부회장. 오죽하면 고적대장의 붓을 보면서 '저 붓을 반으로 잘라 펜싱 칼처럼 사용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 그는 대양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펜싱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다.

“마침 대양중학교에 펜싱부가 있었고, 저는 체육 특활 수업을 통해 펜싱을 접할 수 있었죠. 항상 강당에 찾아가 선수들의 시합을 구경하고 경기 모습을 흥내 내곤 했습니다.”

양 부회장의 적극적인 모습에 선배들은 펜싱을 해보길 권유했다. 하지만 그의 펜싱 도전을 막은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체육을 담당하던 담임 선생님이셨다.

“중학교 때만 해도 몸이 뚱뚱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펜싱할 체격이 아니었던 거죠. (웃음) 학교에 어머니까지 모셔 오라고 해서 ‘양원백은 운동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펜싱을 향한 양원백 부회장의 열정도 만만치 않았다. 끝내 펜싱을 시작하게 된 그는 대양중학교 강당 벽에 구멍을 낼 정도로 찌르기 연습을 했으며, 눈을 감을 때도 펜싱하는 모습을 그릴 정도로 진심으로 펜싱에 몰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종별 대회에 출전했는데, 저희 팀(대양중학교)이 부산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원백 부회장은 고등학생 때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부산 최초로 펜싱 사브르 개인전 우승, 에페 3위 등 한 대회에서 두 종목에 입상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두고 은사님들은 하나같이 ‘양원백은 노력형 선수’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체격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펜싱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할 수 있었죠. 참고로 제가 펜싱하는 것을 반대했던 담임 선생님은 훗날 체육학과로 대학 진학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웃음)”

자부심 가득한 지도자의 길

양원백 부회장이 펜싱을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전문 코치가 없었기에, 선배를 통해 기술을 배우는 게 전부였다. 그랬기에 양 부회장은 시합에 가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봤다. 이후 학교에 돌아와 그 선수의 동작을 따라 연습하고 선배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이후 양 부회장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1975년, 이사벨고등학교에서 펜싱부가 창단되었다. 우연한 기회로 초대 코치를 맡게 된 그는 선수보다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대 후,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했던 양원백 부회장 앞에 후배들이 찾아왔다. 전국 체육대회에 같이 출전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데, 선수로 뛰자고 후배들이 부탁하더라고요. 협회에서 또 대회출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한 임용고시 대신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그는 준우승을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이사벨고등학교에서 펜싱부 감독을 찾고 있었고, 양원백 부회장은 특기 교사로 채용되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이사벨고등학교 펜싱부는 입상 한 번 하지 못했는데, 양 부회장이 부임한 첫해 출전한 대회에서 3등을 차지했다. 이후 문화체육부장관배 5연패는 물론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단체전 모두 메달을 석권할 정도로 부산 펜싱 명문 학교로 성장했다. 양원백 부회장은 선수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2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는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저도 운동할 체력이 아니었지만, 노력으로 이겨낸 산증인이잖아요. 간혹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운동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면, 대학이든 실업팀이든 경험을 더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슬럼프를 이겨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펜싱을 펜싱답게 하라. 즉, 펜싱의 묘미인 ‘머리 싸움’을 제대로 하라는 것.

“펜싱은 상대와의 수 싸움이에요. 상대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하고 상대를 찔렀을 때 오는 쾌감은 엄청납니다. 선수들이 그 짜릿함을 맛보길 원했기에 단순히 몸이 아닌 머리로 펜싱을 하라고 지도했죠.”

양원백 부회장의 지도하에, 부산에는 우수한 펜싱 선수들이 배출되었는데, 그중 2012 런던올림픽 에페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정효정 선수도 있다. 그는 1982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벨고등학교에서 무려 35년 이상 감독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7년부터는 이사벨고등학교 펜싱부가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2019년 퇴임을 하게 되었다.

“한 학교에서 감독을 30년 이상 맡은 것은 제 인생의 큰 자부심입니다. 한 운동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감독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다시 부산 펜싱의 도약을 꿈꾸며

지도자 은퇴 이후 부산광역시펜싱협회 부회장만을 역임하며 지내고 있던 양원백 부회장은 또다시 지도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을 통해 펜싱 지도를 맡게 된 것.

“아이들이 펜싱을 무척 좋아해요. 점심시간인데도 밥을

거르고 펜싱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중 유망한 선수를 발굴해 인근 초·중학교 펜싱부로 진학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 펜싱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전국 상위에 꼽힐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부산 펜싱은 10여 년 전부터 침체에 빠졌었다. 하지만 최근 펜싱 클럽 활성화와 전문 선수 육성에 부산 펜싱인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작년 소년체육대회에서 15년 만에 부산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양 부회장은 부산이 다시 펜싱 메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플리레 부산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어요. 어린 선수들이 대회를 지켜보며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오는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부산 펜싱이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양원백 부회장은 펜싱 발전을 위해 부산 펜싱인들이 지금처럼 서로 양보하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끝으로 40년 넘게 지도자 생활을 해 온 것과 지금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뿐이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다.



PROFILE

주요 이력

- 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 현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수석부회장
- 전 한국중고펜싱연맹 실무부회장
- 전 이사벨고등학교 체육교사 겸 펜싱부 감독



부산 배구는 수정에서 시작된다!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신장은 눈에 띄게 크지 않아도,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수정 초등학교 배구부 선수들. 작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이후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12명의 배구 유망주들을 만나보았다.



함께 성장하며 맺은 결실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는 1999년 창단 이후 20여 년 동안 선수를 육성하며 부산 배구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현재 프로배구에서 활약하며 전·현직 국가대표로 대한민국 배구를 책임지고 있는 양효진·정지윤(현대건설), 박혜민(KGC인삼공사) 등 다수의 선수가 수정초등학교 출신이다. 이처럼 명문 배구부로 알려진 수정초등학교는 2022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13세 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찬란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도 중인 신수민 코치 또한 수정초등학교 출신으로 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2014년 때는 배구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배워왔던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지도하다 보니 아이들도 힘들어했죠. 이후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배구를 지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 코치는 시험 출전보다는 배구부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선수 수급이 중요했는데, 키가 작더라도 배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 아무지게 시작해보고자 했다.

“처음에는 배구공을 가지고 ‘놀이’ 개념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들 스스로 배구에 대해 간절함을 갖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배구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는 코트 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구를 참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는 말을 한다.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는 지도자와 선수 모두 함께 성장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작년 소년체육대회 우승은 수정초등학교 배구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꼽힌다. 결승전 상대였던 경남 유영초등학교는 전국대회 2관왕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것.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놓은 것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는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4강을 목표로 힘찬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수민 코치



자긍심 넘치는 배구부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는 방과 후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체력운동의 경우 어린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크로스핏이나 사다리 스텝 등 놀이식으로 훈련한다. 배구는 단체 스포츠인 만큼 팀워크가 중요한데, 수정초등학교 선수들은 배려심이 깊다며 김명남 부감교사는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저희 선수들은 인사를 잘하는데, 하루에 수십 번 마주쳐도 인사를 하죠. (웃음)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합력도 길러졌습니다. 코트에서 실수해도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김 부감교사는 메달과 같은 성과도 필요하지만,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예전에 교육청과 대한배구협회의 연계를 통해 프로 선수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처럼 선수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남 부감교사

주요 수상내역

- 1999.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창단
- 2021. 03. 제2회 단양 소백산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3위
- 2021. 10. 제54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우승
- 2022. 03. 제3회 단양 소백산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3위
- 2022. 05. 제77회 전국남녀중별배구선수권대회 3위
- 2022. 05.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13세이하부 우승
- 2022. 08. 제1회 땅끝해남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2위
- 2023. 03. 제4회 단양 소백산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3위



수정초등학교는 인근 경남여자중학교와 경남여자고등학교 배구부로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만큼 앞으로 선수들이 배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꿈을 키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누구보다 배구를 사랑하며 즐거운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가는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지금처럼 활기차게 코트를 누비며 눈부신 활약을 펼칠 선수들의 미래를 기대한다.



Mini Interview 수정초등학교 심재희 교장선생님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는 1999년 창단 이후 전문체육 배구선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외에도 많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도 부산지역 여자 배구의 중심학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를 지켜보면 운동도 잘하지만, 예의도 바르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성을 겸비한 선수야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최고의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배구는 입문 단계입니다. 기초 기본 배구 기능 역량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지만, 배움은 즐거워야 합니다. 함께 운동하는 동료와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기쁨 가득한 배구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울퉁한 마음의 뿌리를 간직하며 기품 있는 선수로 성장하여 원하는 분야에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성취해 나가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선수 인터뷰



▶ 박비주(6학년, 주장)

세터로서 수비하는 공을 받아내고 공격수가 잘 때릴 수 있게 공을 올려주면 짜릿해요. 주장이다 보니 먼저 웃으면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 선생님, 동기, 후배들 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소년체육대회에 꼭 출전하고 싶어요!



▶ 권시윤(6학년)

KGC인삼공사의 이소영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키는 작지만, 수비도 잘하고 중요할 때 득점을 내주는데,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수정초 배구부 선수들 항상 고맙고, 경기 때 지고 있더라도 파이팅 하면서 적극적으로 배구하자!



▶ 손에린(6학년)

작년에 언니들이 배구하는 모습을 보며 재밌었는데, 이제는 직접 코트에서 배구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미들 블로커다 보니, 상대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할 때 기분이 짜릿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구를 해서 동료들과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가현(6학년)

배구의 묘미는 서브를 넣는 거 같아요.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도 서브를 잘 넣기 때문이에요. 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코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잘 대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배구를 재밌게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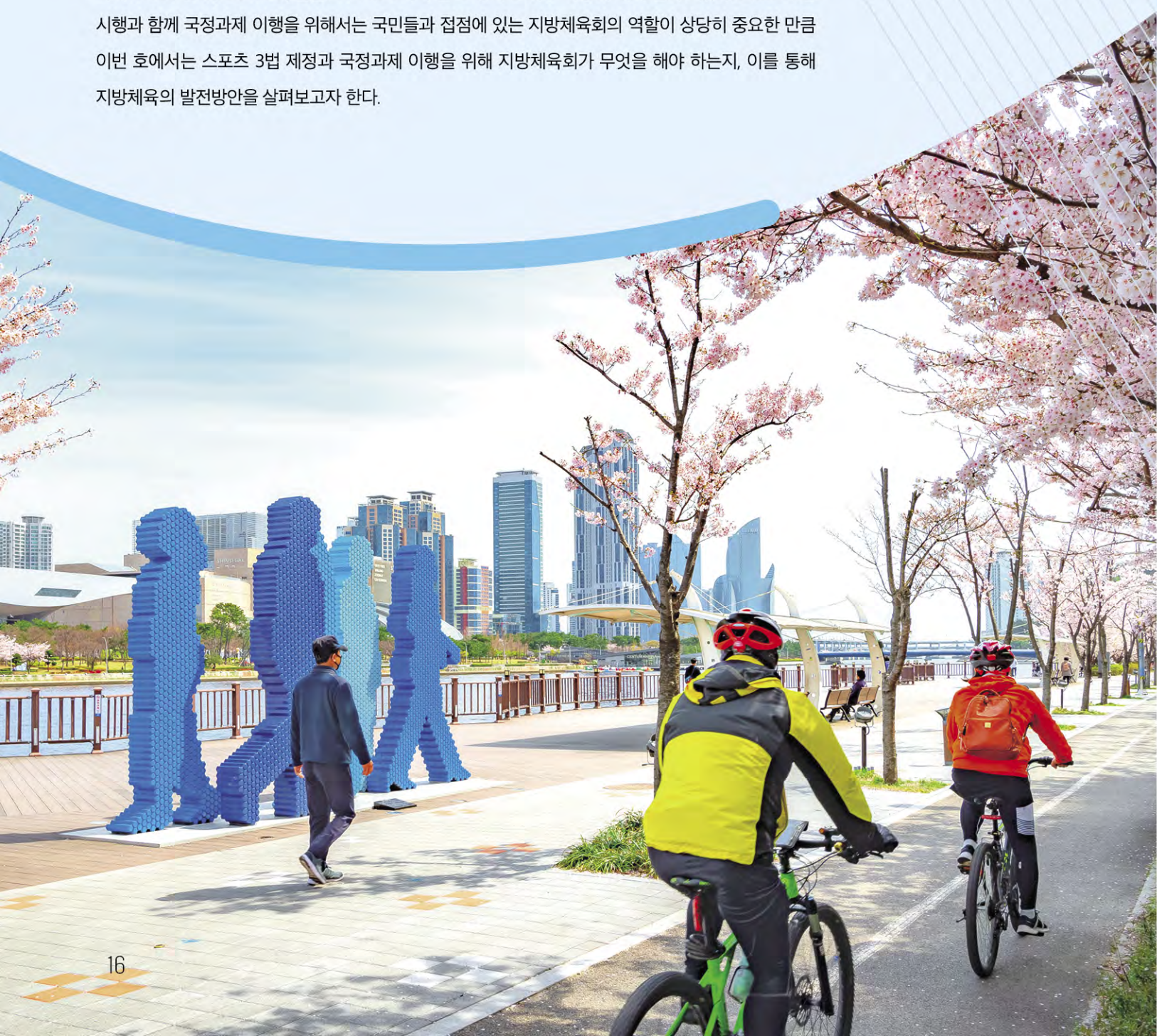
▶ 김자우(6학년)

4학년 때 배구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왔다가 배구가 재밌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배구공 하나하나를 예쁘게 올려서 득점을 낼 때가 가장 좋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배구가 좋아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수비도 공격도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기획연재 ②

지방체육 발전방안

지난 호에서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제정한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등 스포츠 3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관련 국정 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포츠 3법 시행과 함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방체육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번 호에서는 스포츠 3법 제정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체육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지방체육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fessional Experience



글 _ 김대희 교수
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전공)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박사
- 現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 現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입등급심의회 위원
- 現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경영혁신자문단 위원
- 現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위원

1. 체육분야 국정과제 기반 지방자치단체 진흥 정책 추진체계 마련

체육분야 국정과제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스포츠 진흥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및 세부 이행과제를 토대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 체육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스포츠 진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역기반 참여 중심의 스포츠 패러다임 변환

스포츠계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기본권에 기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참여 중심의 스포츠환경 조성 및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어린이·유아 체육활동 강화, 학생 체력 증진 활동, 청년 야외스포츠 활성화, 어르신 건강·체력 통합서비스)체계 마련을 통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고 스포츠인센티브제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문체육 환경조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문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선수 육성 체계 다변화를 통한 지역 내 실업팀 확대 및 첨단 스포츠과학 기반 경기력 향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저출산 시대에 지역 내 선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신설 등을 위한 육성 종목 선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의 우수 선수 자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집 주변에서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원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첨단 스포츠과학의 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지역의 우수 선수들이 진학이나 입단 등을 통해 타지역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육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체육인복지사업의 경우도 현재 중앙 중심의 체육인복지사업을 탈피해 지역의 체육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이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들의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지방체육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육인복지사업 등을 발굴해 중앙 중심의 체육인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체육인들을 위한 촘촘한 체육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및 노후 스포츠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및 노후 스포츠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와 함께 지역 내 노후 스포츠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노후화된 스포츠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단순히 대회나 경기만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이나 각종 문화시설,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등 스포츠 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5.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각종 대회 유치 방안 마련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개최 가능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 등 유치 가능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계획 수립 및 각종 대회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관광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 3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우리 스포츠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제부터는 스포츠 3법에 따른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사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조직, 예산, 규정 등 세부 사항 등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이제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스포츠 권을 보장하고, 집 주변에서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체육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민선 2기를 맞이한 지방체육회는 앞으로 스포츠 3법의 시행과 국정과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역단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체육회 중심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스포츠복지 시대,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및 추진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 2기를 맞이한
지방체육회는
지역단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안전하게 재미와 팀워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다

가야여자중학교 넷볼팀

NETBALL



넷볼이란?

넷볼은 1895년 초, 영국 여성들이 미국에서 경험한 농구를 토대로 이를 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만든 농구형 뉴스포츠다. 이후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연방 국가에서 여성 전용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니폼에는 포지션을 나타내는 GS(골 슈터), GA(골 어택), WA(윙 어택), C(센터), WD(윙 디펜스), GD(골 디펜스), GK(골 키퍼)의 영문자를 가슴과 등에 표시하고 플레이하며, 이 영문자는 각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가야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는 파워풀한 슈팅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완벽한 호흡의 팀플레이를 자랑하는 가야여자중학교 넷볼팀을 소개한다.

강희태 지도자 인터뷰

Q. 넷볼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경기방식은 농구와 비슷하지만, 드리블 없이 패스로만 공을 전달하여 상대편 골 포스트에 슈트를 성공시켜 승패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포지션별로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지정된 구역에서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슈트를 할 수 있는 사람도 2명만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신체접촉 금지'라는 규정 덕분에 몸싸움이 없어 안전한 것이 장점입니다.

Q. 가야여자중학교 넷볼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최초 구성은 2020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뉴스포츠 관련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체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15명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율 동아리를 꾸준히 유지하였고, 올해는 3학년 4명, 2학년 2명, 신입생 9명 등 총 1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훈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소 훈련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인 기본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는 매주 토요일 '토요스포츠데이'를 활용하여 팀워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대비하는 달에는 아침 등교시간에 일찍 모여서 보충 연습을 진행하고,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교류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넷볼은 섬세한 팀워크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라고 합니다. 훈련 중 학생들의 팀워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평소 체육 시간이나 방과 후에 여러 게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친밀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스포츠 경기관람을 하거나, 평소에도 꾸준히 단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희태
지도자





Q. 앞으로 가야여자중학교 넷볼팀을 어떻게 운영해나가고 싶으신가요?

이병애 교장 선생님, 오장연 교감 선생님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에서 자율 동아리를 열심히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많은 여학생들에게 넷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류전을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이끄는 선도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넷볼 경기의 팀플레이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가야여자중학교 넷볼팀 활동 연혁

- 2020. 자율동아리 개설 (1학년 15명)
- 2021, 2022. 스포츠 문화 탐방 (BNK 썸 여자 프로농구 경기 관람)
- 2022. 부산광역시 넷볼 학생스포츠클럽 대표 선발
- 2022.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넷볼 경기 참가
- 2022. 부산교육감배 넷볼 학생스포츠클럽대회 친선 교류전



2022년 부산광역시 넷볼 학생스포츠클럽 대표 선발

학생 인터뷰

Q. 반갑습니다. 처음 넷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지연 학생 : 원래는 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스포츠클럽에 들어오면 배구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연히 선배들이랑 넷볼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있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대회 출전할 수 있었어요.

임한나 학생 : 친구들이랑 토요일스포츠데이를 통해서만 넷볼을 즐겼었는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전국대회를 준비했던 기간에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김지연 학생

Q. 다른 스포츠와 구별되는 넷볼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지연 학생 : 다른 구기 종목은 몸싸움도 종종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넷볼은 딱히 장비가 필요 없어요. 또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서 몸싸움이 없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나이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게 매력 아닐까요?

임한나 학생 : 넷볼이랑 비슷한 종목이 농구인데, 농구는 보드판도 있고 경기가 좀 더 크게 진행되는데 그에 비해 넷볼 골대는 더 작고 보드판도 없어서 골을 넣을 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Q. 훈련하고, 활동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학생 : 친구들, 선배들이랑 같이 연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는 게요. 훈련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서 황당한 자세로 넘어지거나, 공을 패스하다가 서로 얼굴을 맞추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임한나 학생 : 넷볼을 하면서 얻은 대부분의 추억이 다 재미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친구들, 선배들이랑 같이 전국대회 나갔을 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고 왔던 것이에요.

Q. 끝으로 각자에게 넷볼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지연 학생 : 저한테 넷볼은 '급식' 같아요.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눈이 말뚱말뚱해지잖아요. 또 급식을 먹고 나면 힘이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학교나 학원에서 힘들어하다가 친구들, 선배들이랑 같이 넷볼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넷볼 덕분에 공부할 때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임한나 학생 : 저한테 넷볼은 '꽃 한 송이' 같아요. 꽃은 단 한 송이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 자라나면서 잎이 떨어지기도 하죠. 꽃의 성장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것처럼, 넷볼을 할 때도 작은 부상이 발생하긴 하지만 대회를 위해 필요한 성장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임한나 학생

100세 건강시대를 위하여, 열쑈!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

동래구는 금정산과 마안산, 온천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으며, 사직종합운동장과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금강공원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래구체육회는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지역민들이 생활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성풋살팀

Q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동래구 슬로건을 필두로 동래구체육회는 부산의 스포츠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동래구, 행복한 동래구를 비전으로 삼으며 구민 건강, 구민행복, 구민화합을 목표로 다양한 수업 및 사업, 대회와 행사 등을 운영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Q 동래구는 동래중·고등학교 등 축구 명문학교를 둔 것을 비롯해 축구 종목에 강하다고 합니다. 축구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TV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열풍에 부응하여 동래구 여성 구민들을 대상으로 동래여성풋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래여성풋살클럽의 약자인 ‘DN WFC’라는 팀명으로 연령, 실력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현재 WK리그 선수 출신인 전담 지도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활기찬 밝은 여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Q 동래구는 온천천을 끼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하반기에 잠정 휴강이었던 야외 라인댄스 수업을 재개함으로써 현재 100여 명이 넘는 동래구 주민들이 배우며 즐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성원에 2개 교실로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신체에 무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운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Q 동래구체육회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주부태권도교실’ 운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동래구인공암벽장 등 가까운 곳에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클라이밍과 같은 이색 스포츠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동래구체육회의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알리고 있으며, 온천천 거리에서도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동래구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래구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스포츠클럽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플로깅(줍깅)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공헌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행복을 나누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주도하는 동래구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짜릿한 스피드를 즐긴다 노블인라인클럽



겨우내 답답했던 실내에서 벗어나 선선한 봄바람과 함께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면 노블인라인클럽을 찾아가 보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라인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다.

Q. '노블인라인클럽'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블인라인클럽은 '인라인도 인생도 노블(Noble)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인라인을 즐기는 가족 같은 클럽입니다. 2021년 6월에 창단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동호회로 40~70대 동호회원 19명이 삼락생태공원 인라인장 3트랙에서 인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노블인라인클럽에서는 스케이팅하는 방법은 물론 장비를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공유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인라인스케이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인라인스케이팅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하체 근력을 키워줘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가족과도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며, 한 번 배워 두면 평생 인라인을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휴대성도 간편해 여행이나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매력의 스포츠입니다.

Q. 노블인라인클럽의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노블인라인클럽은 분야별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인라인 자세라든지 인라인 신발 정비 및 수리 등의 기술을 함께 배우고 공유합니다. 모임은 매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동하고 있으며, 수요일 오후나 주말에는 다 함께 모여 팀팩(함께 줄을 서서 달리는 인라인스케이팅)과 개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다가오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 달에 2번 밀양 독길에서 로드스케이팅도 합니다.



노블인라인클럽에서는 삼락생태공원 인라인장 트랙의 바닥 이물질 및 고인 물을 제거하는 등 직접 인라인장을 관리하고 있다.

Q. 동호회 활동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산시 내에서 일반인들이 운동할 만한 곳은 삼락생태공원의 인라인장 1·3트랙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인라인을 타기에는 적합한 장소이지만, 노후화가 되어 바닥을 수시로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블인라인클럽에서는 회원들이 바닥에 이물질 및 고인 물을 제거하는 등 직접 인라인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뿐만 아니라 인라인을 타시는 모든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Q.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인라인은 다른 운동에 비해 기술보다 체력 향상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 실력도 향상되는 운동이라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개인 노력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1년 정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로드스케이팅을 즐길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집니다.

인라인은 시작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서 장비를 구하지 못해 인라인을 시도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블인라인클럽에서는 장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초자세 그리고 고급기술까지 단계별로 전담 회원이 정보 제공은 물론 체계적인 지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트랙과 로드에서 즐기는 인라인스케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피드의 차이가 큼니다. 트랙은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돌기에, 그만큼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구간도 한정적입니다. 반면 로드스케이팅의 경우 40~50km의 직선코스를 달리다 보니, 4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로드스케이팅에서 동호회원들과 함께 질주하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합니다. 또한 자연을 벗 삼아 인라인을 탈 수 있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Q. 앞으로 노블인라인클럽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인라인을 타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락생태공원 내에 인라인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에 저희 노블인라인클럽에서는 지난해 각종 지도 제작 회사에 연락해서 삼락생태공원 인라인장이 검색되도록 등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락 인라인장에 찾아오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라인의 매력을 알고 인라인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블인라인클럽 주요 연혁

- 2021. 04. 17. 출범 준비위원회 구성
- 2021. 06. 19. 출범식 개최(삼락인라인장 3트랙)
- 2022. 06. 12.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 참가
- 2022. 12. 17. 회장제에서 운영위원제로 변경

Mini Interview

노블(Noble)하게 인라인을 즐깁시다



김중진 운영위원장

노블인라인클럽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회원들이 뜻을 합해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품격'을 갖춘 회원 19명이 인라인을 즐기며 단합하는 동호회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인라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체 근육이 빠지곤 하는데요. 인라인을 타기 시작한 후로 하체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안 쓰던 근육이 발달하면서 탄력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어 노화 방지에 인라인만 한 운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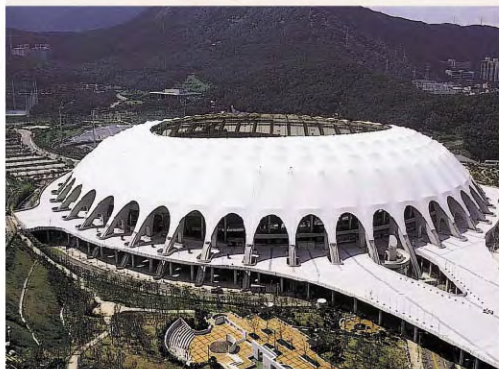
저희 노블인라인클럽은 기술 습득을 빨리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못지않은 운영위원회 감독님이 계셔서 회원들에게 세심히 지도해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인라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삼락생태공원 인라인장 3트랙으로 오세요.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사용한 신발을 깨끗이 수선해 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인라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삼락생태공원에서 노블하게 인라인을 즐기시다!



강인한 정신력의 표본, 부산체육 부산체육의 역사



1973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5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모름지기 강인한 체력은 강인한 정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법. 부산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곳곳이 견뎌낸 지역이다. 그만큼 부산체육의 역사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2011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개장식

부산체육회의 출범

우리나라 근대 체육은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 태동부터 쉽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나 저항의 불씨가 만들어질까 두려웠던 일제는 서울의 사립학교 연합운동회 등 모든 체육 활동을 제한하며 우리나라 근대 체육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순수한 운동회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산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같은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체육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다고 한다. 광복 이전 부산에는 부산진 방면의 부산체육회부터 수정 방면의 수정체육회, 초량 방면의 중앙체육회, 대신동 방면의 서부체육회, 영도 방면의 영도체육회까지 총 다섯 개 단체가 있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체육회가 재건되었고, 조선체육회는 1937년 제18회 대회를 끝으로 단절되었던 전조선종합경기대회를 부활시켰다. 부산에서는 가장 먼저 부산육상경기 동호회가 재건되면서 해방 기념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뒤를 이어 부산축구협회의 해방 기념 축구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이때 부산체육회 재건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산체육회는 1945년 11월경 재부체육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체육회 창립을 발의하면서 출범했다. 부산체육회 초대회장에는 양성봉 부산부윤이 선출되었으며, 부산체육회는 정부직할시 승격 이전 경남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이자 경남체육회의 유일한 가맹단체로서 8·15기념체육대회와 부인대운동회 등을 주최하였다. 그리고 1963년 1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같은 해 3월 창립총회 개최 이후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탄생하였다. 초대 회장에는 김현옥 부산시장이 선출되었다.



초창기 부산시체육회관

광복 이전 부산에는 부산진 방면의 부산체육회부터 수정 방면의 수정체육회, 초량 방면의 중앙체육회, 대신동 방면의 서부체육회, 영도 방면의 영도체육회까지 총 다섯 개 단체가 있었다.



1960년대 구덕운동장



1972년 제53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입장



국제대회기념전시관



차근차근 쌓아온 성과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출범하고 부산시는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체육 활동은 체육회에 의존하고 있었고, 체육진흥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실정으로 인해 꽤 오랜 기간 성과가 부진했다. 다행히 부산체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차츰차츰 이루어졌고, 1972년 제53회, 1973년 제5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7년 제38회 이후 16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 제54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다음, 개항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부산시는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우선, 1980년부터 부산종합운동장 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다. 1982년 10면의 테니스장을 세우고, 1984년 체조체육관, 1985년 지상 4층의 실내체육관, 인조 잔디 야구장(2006년 천연잔디로 교체)을 차례로 건립하였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금정·강서·기장 지역에 종목별 경기장을 건설하여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경기 개최를 통해 부산체육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시민과 함께한 부산체육

부산시와 아시아경기대회의 역사는 1993년 4월 백만인 서명운동부터 시작되었다. 서명운동으로 인해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향한 열기가 뜨거워졌고 그 결과 부산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1997년 5월에는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치를 수 있었는데,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선보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부산이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할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증명하였다.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는 21세기 최초의 아시아경기대회이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 번째 아시아경기대회였다. 44개국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2위의 성적을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후 부산시는 제8회 부산-태장애인경기대회, 2005년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03년부터 국제챌린저대회로 승격된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등 수많은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면서 명실상부 국제스포츠 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는 모두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산체육의 성장이 곧 복지 향상

부산시는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와 동시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해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체육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활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시설 및 부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레저 개발 등 생활 체육 양성에 힘썼다.

부산시민 전 연령층이 생활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낙동강 둔치, 학교 운동장 이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 및 16개 구·군에서는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단학기공, 체조, 수영 등 1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화하였다. 2008년에는 부산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산시체육회관과 국제경기대회기념관 복합시설을 준공 및 개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생활체육의 확고한 구축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다양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참여 인원이 29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751개소를 조성하는 등 부산시민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체육 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부산체육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부산체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과 함께 걸은 길을 넘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갈 부산체육. 다가오는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산체육의 눈부신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_ 부산광역시 '부산의 역사 - 지정역사 - 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50년사'

제21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

따가운 햇볕 한줄기를 가로지르며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제21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에는 4천여 명의 동호인 및 일반 시민이 함께하였는데, 그 대회 현장 속으로 함께 뛰어보자.

글 _ 제2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은경



끝없는 도전, 오늘도 난 달린다!

3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진행된 제21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과 성우하이텍의 주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 벅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 및 일반 시민 4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마라톤 종목은 온택트 마라톤(18~19일)과 10km 레이스, 건강달리기 포함된 오프라인 대회(19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종목마다 제한 시간 및 코스가 다르다. 제한 시간은 10km 달리는 2시간, 건강달리기(5km)는 1시간 30분이었으며, 온택트 마라톤은 제한 시간이 없다. 10km 달리는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출발하여 올림픽동산삼거리-민락수변로-광안리 해수욕장-삼익비치아파트 201동에서 유턴하여 돌아오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달리기(5km)는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출발하여 올림픽동산삼거리-수영강 산책로(민락동)-좌수영교-APEC 나루 공원-센텀시티 사거리에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한편, 온택트는 원하는 코스에서 자유롭게 러닝을 즐기면 된다. KNN 환경마라톤을 유심히 지켜보면 일반 마라톤과는 다른 점이 있다. 바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KNN 환경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기부 캠페인과 플로깅 이벤트로 일상 속 환경 지킴이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대회 시상은 10km 달리기 참가자에 한해서 개인, 연령, 단체로 구분되어 나누어졌으며 기념품은 환경 마라톤대회라는 취지를 살려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텀블러, 크로스백, 마스크, 쿨링 타올, 마스크팩 등을 증정하였다. 대회는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의무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선수들의 부상 및 사고예방을 강조한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Interview

마라톤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권순희 참가자
(10km 달리기 여자 부문 준우승)



Q 대회에 참가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A 50세가 넘어서도 늘 운동 삼아 조깅하다가 부산에서 대회가 열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프 주자로 뛰었는데 오늘은 10km를 완주해서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날씨, 코스가 잘 맞았는데, 준우승까지 하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Q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부산 마라톤 선수입니다. 동호회나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주중에는 일과 가정에 힘을 쏟아낸다면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마라톤 여행을 다닙니다. 지방마다 대회를 돌아다니면서 대회가 있다면 참여를 하곤 하죠. 17년 동안 하다 보니 마라톤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Q 앞으로 마라톤 목표가 있다면?

A 제가 지금 50대이기에 70세까지 아프지 않고 꼭 건강하게 뛰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10년, 2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가해 뛸 것입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스포츠가 되다

육상

ATHLETICS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멀리! 오직 인간의 몸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자, 모든 스포츠의 근간인 육상. 30가지가 넘는 세부 종목만큼 다양한 육상의 매력에 대해 살펴보자.

육상의 역사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육상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했다. 달리고, 뛰고 던지는 일련의 활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와 공격법이었던 것이다. 이런 행동이 점차 발전하여 육상경기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의 제전 및 종교적 행사의 식전 행사로 달리기, 창던지기 등의 종목이 행해졌다.

스포츠로서 육상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서기전 776년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을 찬양하기 위해 시작된 고대 올림픽에서부터이다. 고대 올림픽은 서기 393년까지 4년마다 실시되어 총 290여 차례 열렸는데, 육상을 중심으로 경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대 올림픽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점차 타락되어 394년에 폐지되었으며, 중세에는 무술을 중심으로 한 기사도의 장려로 육상경기는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1896년 쿠베르탱에 의해 근대올림픽에서 육상경기는 부활되었다.

제1회 아테네올림픽(1896)에서는 100m·400m·1,500m·하이허들(High Hurdle)·마라톤·높이뛰기·멀리뛰기·장대높이뛰기·세단뛰기·포환던지기·원반던지기 등의 종목이 펼쳐졌으며, 그 뒤로도 계속 올림픽의 중심종목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1921년에 국제 공통의 경기규칙과 세계기록공인 제도가 채택됨으로써 육상은 완전한 경기체계를 갖추며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육상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육상경기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896년 5월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에서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 등의 지도로 운동회를 개최하면서부터다. 당시 경기는 시설이나 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친선경기적인 성격이 짙었으나, 1920년대부터 육상경기로서의 체계가 잡혀지게 되었다. 1919년에 일본인이 주관하는 조선체육협회가 발족되고 1920년 7월에는 조선체육회가 조직되어 육상분야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체계가 수립되었다. 특히, 조선체육회 주체로 개최된 제1회 전 조선육상경기대회(1923)는 우리나라 육상경기의 신기원을 이룩한 경기로 평가된다. 이후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는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2초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7년 조선체육회가 일본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흡수되는 등 일제 말기의 민족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육상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9월에 조선육상경기연맹이 조직 및 발족 되고, 1946년부터 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 육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마라톤 선수 이봉주다. 그는 1996 애틀랜타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998 방콕 및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이상혁 선수가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로 2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육상경기'

다양한 육상종목

육상은 다양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된 스포츠로 크게 트랙 경기(단거리·중거리·장거리), 필드 경기(도약·투척), 도로 경기로 구분한다.

트랙 경기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100m 단거리부터 전신 지구력이 필요한 10,000m 장거리 '달리기'와 육상종목 중 유일한 단체 종목인 '릴레이', 경주와 도약을 함께하는 '허들' 및 '장애물'이 포함된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릴레이	장애물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10,000m	4×100m, 4×400m	110m 허들(여자 100m 허들), 400m 허들, 3,000m 장애물

필드 경기

'도약'은 멀리, 높이 뛰어야 하는 만큼 신체의 탄력이 필요하며, '투척'은 다리 힘과 스피드의 기술적 요소가 중요하다.

도약	투척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장대높이뛰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도로 경기

'경보'는 한쪽 발이 항상 지면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진하는 종목이다. '마라톤'은 올림픽대회 가운데 최고 인기종목으로 우수한 심폐 기능과 강인한 근력이 필요하다.

경보	마라톤
20km, 50km	42.195km

재미있는 육상 이야기

참고자료 : 대한육상연맹 육상이러닝 센터 '마라톤 기원과 코스'

마라톤은 원래 42.195km가 아니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의 마라톤 근처에서 치러진 페르시아와의 치열한 전투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아테네까지 달려온 후 숨진 병사 필리피데스(Philippides)의 전설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36.75km(아테네 마라톤교(橋)에서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달리기로 부활했다.

당시 올림픽을 지켜보던 미국 보스턴 육상경기클럽 브라운 회장은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그리스 국민을 단합시킨 성공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며 그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 보스턴마라톤대회가 창설된다. 첫 대회에서는 미국 독립전쟁의 유서 깊은 보스턴에서 역사적 의의도 되새기고 마라톤의 경기력 향상도 꾀하기 위해 독립전쟁 최초 교전지로 유명한 렉싱턴(Lexington)을 왕복하는 39.751km 구간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1908년 런던올림픽대회 마라톤 코스는 메인 스타디움을 출발점으로 하는 42km 구간이 설정됐으나 스포츠를 매우 좋아한 당시 영국 여왕 알렉산드라가 윈저궁의 발코니에서 선수들의 출발 모습을 보고 싶어 해 출발점을 윈저궁으로 변경하면서 윈저궁에서 화이트시티 스타디움까지의 41.8km 구간으로 바뀌었다. 또한 골인 지점도 에드워드 7세의 로열박스 앞으로 변경되면서 352m가 더 늘어나면서 42.195km가 됐다. 이후 16년의 열띤 논쟁을 거친 후 1924년 파리 올림픽대회에서 42.195km가 마라톤 공식거리로 확정됐다.

육상 트랙과 필드



SPORTS JOB

스포츠선수는 다른 직업과 비교해 수명이 짧다. 종목 특성에 따라 이르게 은퇴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 선수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이때 체육인들은 몸담았던 종목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막막한 체육인들에게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에 대해 알아보자.

체육인의 새로운 인생 출발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란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는 선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선수와 면담을 한 뒤, 각종 직업 검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선수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준다.

선수들의 생애주기를 잘 이해하는 서포터즈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는 '상담'을 기반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면 좋다. 특히 '스포츠선수'라는 특수한 직군을 상담하는 것이기에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운동선수의 생애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는 선수와 상담할 때 공감 능력이 발휘되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신뢰' 형성도 중요하다. 단순히 선수의 직업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선수가 당면한 상황이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된 상담 내용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 또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물론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은 필수로 갖춰져야 한다. 스포츠선수들의 새로운 인생 여정에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스포츠선수 직업상담사 직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e진로지원센터**(<https://welfare.sports.or.kr/>)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이직 및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 맞춤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통풍(痛風)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통풍(痛風).

통풍은 발목이나 무릎 혹은 손목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부기와 열감이 느껴지는 증상이다. 특히 봄에 급증하는 질병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통풍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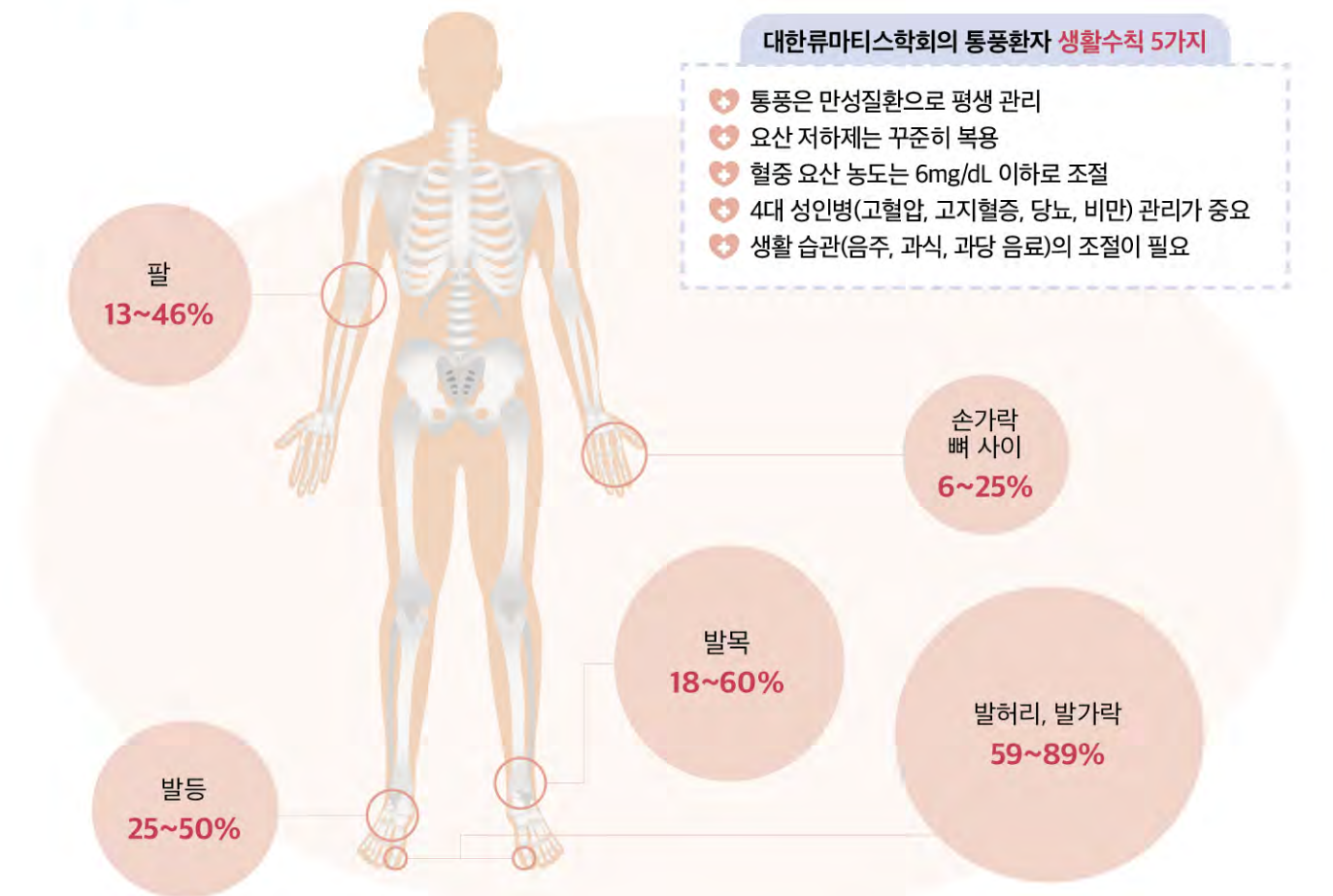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통풍

극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풍은 특히 봄철에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봄철이 되면 활동량이 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렇게 늘어난 활동량이 육체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요산(통풍의 원인 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지는 고요산혈증으로 인하여 심한 급성 관절 통증을 유발한다. 증상에 따라 아무런 증상이 없는 ‘간헐기’와 증상이 악화되는 ‘발작기’로 나뉘며, 통증이 극심해져 악화되는 형태인 ‘통풍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통풍은 적정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 증가는 물론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 등 전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술, 과당을 포함한 음료, 고기 내장, 소고기 등 붉은 고기류 같은 고퓨린 함유 음식 섭취는 줄여야 한다. 또한 유제품, 블랙커피 및 충분한 수분 섭취는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지난해 통풍환자를 위한 생활수칙 5가지를 발표한 데 이어 통풍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3월 16일을 통풍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다.

통풍 발생 부위



국민체력 100

출처_ 국민체육진흥공단
[백호랑 까치랑] 국민체력 100



외국의 사례를 보면, 먼저 전국민대상 상시체력측정 및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	프로그램명	내용
유럽	유럽체력검사(Eurofit), 유럽신체활동 수준 및 체력검사(Alpha-fit)	
아시아	대한 체육검사, 일본 체육 운동능력 운동습관조사, 홍콩 체육인용지, 싱가포르 체력인증제(NAPFA), 중국 학생 체질-건강검사	
미국 (1995-)	Presidential Program (대통령직속스포츠위원회)	
독일 (1913-)	스포츠벤티지 Sportabzeichen fuer die Bevolkerung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러시아	러시아 GTO Ready for Labour and Defence of the USSR	
캐나다	성인건강측정조사(CHMS) 등	
호주	체력검사	





책 소개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세이노의 가르침》

—
순자산 천억 원대 자산가,
세이노의 '요즘 생각' 을 만나다

저자 세이노 출판사 데이원

저자의 필명 '세이노(Say No)'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No!'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세이노는 2023년 기준 순자산 천억 원대 자산가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을 겸임하기도 했으며, 인재경영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그런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칼럼을 통해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세이노 스승님'이라 부른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이 책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목차를 훑어보자. 재테크 기법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이 삶의 우열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대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삶의 자세부터 바로잡고, '피보다 진하게 살라' 한다. 세이노 사전에서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이다. 하기 싫었던 일조차 좋아질 만큼!

돈에 기죽지 마라!

저자는 돈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놓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사회에서 돈은 마치 '피'와 같다.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 시키듯,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피가 부족한 이를 위해 피를 나누듯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수혈받길 바란다. 그리하여 어디의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살아가면서 소중한 걸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꿈꾼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도 많으니까.



책 속에서 만나는 한 구절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여라.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수준에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69p)

BSC SPORTS NEWS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24km 코스 500명, 45km 코스 1,200명 참가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부산시민 자전거대회가 지난 4월 1일(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9년부터 개최한 부산시민자전거대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마련한 대회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 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4월에 즈음하 여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연령이 참가하였으며, 순위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로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하였다. 처음 대회에 참가한 한 동호인은 “아름다운

낙동강 경관과 시원한 강바람을 느끼며 라이딩하여 도심을 벗어나 힐링할 수 있었고, 안전을 위해 코스내 주요 위험구간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호평하였다.

본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모두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16년 연속 종합 5위 성과 · 크로스컨트리 4관왕 이의진 선수 MVP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3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동계스포츠 종목 임원, 선수,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은 금 10, 은 7, 동 18개로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종합점수 464점으로 16년 연속 종합 5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종목별 성적에서는 스키, 빙상, 컬링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여 표창패를 수상하였고, 개인 성적에서는 크로스컨트리에서 4관왕(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을 달성한 이의진 선수가 MVP를 수상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어려움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환경 속에서도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분들의 지원과 지도자 및 선수들의 남다른 열정,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서구체육회

민선 2기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김용구 회장 취임식

서구체육회는 3월 31일(금) 민선 2기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서구청장, 구·군체육회장, 각 종목 협회장, 임원, 지역 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용구 회장은 “코로나 전처럼 다시 한번 뜨거운 땀을 나누며 체육의 장을 열어가는 민선 2기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동구체육회

2023 동구체육회생활체육교실 및 2023 장수체육대학

동구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2023 생활체육교실은 골프, 유도, 건기(수정산), 국학기공, 테니스, 배구, 족구 등 다양한 실내외 운동 종목을 통해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2023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 야외배드민턴, 체조 등 3종목을 선정하였다. 4월 11일(화)부터 6월 30일(금)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장려하여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영도구체육회

민선 2기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 취임식

영도구체육회는 3월 9일(목)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민선 2기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하였다. 한영익 회장은 “영도구 스포츠 복지실현과 영도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취임을 기념해 받은 500만 원 상당의 쌀을 영도구청에 기탁 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제5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3월 12일(일) 황령산레포츠 공원 축구장에서 총 48개 팀,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냄과 동시에 각 팀의 아름다운 화합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경기로 마무리되었다.

* 각 부 우승 : 백우E / 백병원A / 오륙C



동래구체육회

제21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3월 4일(토)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제21회 동래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동래구청장과 동래구체육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많은 동호인들이 화합하며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구민들의 신체적 활동 폭이 넓어지는 만큼 동래구체육회는 동래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구체육회

민선 2기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취임식

남구체육회는 3월 23일(목) 남구청장,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구·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2기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취임식은 식전 색소폰 축하공연, 개식 선언, 인준서 수여 및 회기 전달,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정춘식 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 후생 복지향상 및 부산 남구민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북구체육회

2023 제21회 북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3월 26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21회 북구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배드민턴협회 13개 클럽 동호인 약 1,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화합의 장을 펼쳤다.



해운대구체육회

민선 2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정성철 회장 취임식

3월 9일(목) 민선 2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취임식은 체육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철 회장은 '건강한 해운대! 행복한 구민의 삶'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해운대구체육회는 100세 건강 시대를 맞아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 지수를 높여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하구체육회

2023년 사하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

사하구체육회는 3월 22일(수) 제3차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이사 위촉장 수여 및 뱃지 전달식을 시작으로 회장과 임원들은 사하구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금정구체육회

민선 2기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최규원 회장 취임식

금정구체육회는 3월 28일(화) 금정구 주요 내외빈 및 체육회 관계인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2기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최규원 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혼신을 다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금정을 만들겠다"며 "금정구 체육 미래의 초석을 다지고 나아가 부산을 대표하는 위상있는 체육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서구체육회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정기이사회

강서구체육회는 3월 9일(목) 강서구체육회장, 임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제3대 민선 2기 강서구체육회 임원 위촉장 수여 및 출범 경과보고, 제2차 비대면 서면결의 이사회 결과보고 및 2023년도 추진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연제구체육회

2023년 연제구체육회 제2차 이사회

연제구체육회는 3월 23일(목) 연제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부회장 4명, 감사 1명, 이사 24명 등 총 3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연제구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를 심의·의결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3년 수영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

수영구체육회는 3월 16일(목) 2023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와 민선 2기 수영구체육회 이사진 소개, 부회장 및 신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황대성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체육회와 늘 함께해주시는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2023년에도 함께 화합하며 보다 발전적인 체육회를 위해 힘써달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기장군체육회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장 이·취임식

기장군체육회는 3월 11일(토)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이·취임식에는 기장군수, 국회의원, 체육회 임원 및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최상철 회장과 김영근 사무국장이 새롭게 합류한 기장군체육회는 한층 더 젊어진 체육회, 더욱더 발전될 기장군체육회를 기대해 달라는 포부를 전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제21회 입학식 진행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3월 2일(목) 부산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제21회 꿈나무체능단 입학식(신입생 50명)을 개최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공개하지 못했던 입학식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였으며, 단원들은 즐거운 유치원 생활의 각오를 다지는 씩씩한 단원 선서로 단원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유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입학 축하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입학식 이

후 풍선을 배부하는 등 축제의 분위기를 가졌다. 입학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앞으로 아이가 유치원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장은 “단원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부산국민체육센터 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레 핏 스트레칭 공개수업



부산국민체육센터는 3월 23일(목) 에어로빅실에서 발레 핏 스트레칭 무료 공개 강습을 진행했다. 발레 핏 스트레칭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설한 신설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통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약 25명의 시민들이 무료 강습에 참여하여 지도 강사의 강습 아래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22명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편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어린이 음악줄넘기반 개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장 발달 및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신규프로그램인 어린이 음악줄넘기반을 4층 B스튜디오에 개설하였다. 어린이 음악줄넘기반은 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줄넘기의 전문적인 기술과 리듬 감각 및 두뇌 발달 향상에도 도움

을 주는 만큼 어린이들의 협동심과 집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풍성한 신규프로그램 개설로 지역주민 이용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문의 051-365-7070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새 덤벨, 탄력봉 입고 및 수영장 트렌치 커버 교체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노후된 기구를 정리하고 새 덤벨과 탄력봉을 대량 입고하여 교체했다. 새 덤벨은 각이 있어 굴러지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탄력봉은 탄성이 있어 손목을 포함한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 배수로의 커버로 쓰이는 트렌치

를 신형으로 새롭게 교체했다. 센터 측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구를 입고해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스포츠 활동을 이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회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센터의 보수되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실내빙상장

USS 니미츠 항공모함 아이스하키 동호인 방문



USS 니미츠 항공모함 아이스하키 동호인들이 부산실내빙상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부산지역 아이스하키 동호회 블루윙즈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타국 항공모함의 아이스하키 동호인들이 부산실내빙상장을 방문한 것

은 처음으로, 부산지역 동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국 소속 항공모함인 니미츠호는 대한민국과 우호 증진을 위하여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마치고 3월 28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2023년 부산광역시장배 남·여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3월 15일(수)과 18일(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23년 부산광역시장배 남·여 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같고

뒀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다. 코로나19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후 열린 첫 대회로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테니스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

대회 결과

남자부	우승	준우승	3위
금배조	불나비클럽	동맥클럽	마스터즈(청)클럽
동배조	인사이드(청)클럽	무천클럽	러브(청)클럽 강서 나이스(청)클럽

여자부	우승	준우승	3위
은배조	럭키클럽	나인클럽	-
동배조	강서원더A클럽	나인A클럽	금강A클럽 강서원더B클럽

거점스포츠클럽



제16회 안동옹부배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3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1박 2일간 안동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제16회 안동옹부배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김경원 지도자의 인솔하에 초등부 8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결과, 여자 새싹부 단식 3위 천시은 외 모든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다음 시합에서도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2023년도 부산 초·중학생 체육대회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을 위해 2023년도 부산 초·중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체조 5명, 테니스 5명, 펜싱 3명 등 총 13명의 선수가 선발되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길 응원한다.

선발

체 조 여중부 : 윤자영, 하수정, 박혜민 / 여초부 : 정미르, 이윤아
 테니스 여중부 : 김연우, 박소민 / 남초부 : 천시후 / 여초부 : 김서윤, 유연서
 펜 싱 남중부 : 김민결, 성정민, 김건우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라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민공원 일동미라주 시티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신장유 일동미라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라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라주



김해 관동동 일동미라주 더스타



부산 영도 일동미라주



울산온양 일동미라주



울산 매곡중산지구 U-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

2007년
대통령 표창 수상

2010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
부산문화대상
경영부문 수상

올바른 장례문화의 시작

(주)시민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 및 관습을 타파하고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 계열사 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051)896-4444
BUSAN PAIK HOSPITAL FUNERAL HALL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051)893-4444
HAEUNDAE PAIK HOSPITAL FUNERAL HALL

☑ 장례전문인력

전문 장례지도사
전문 이송단
인력 도우미
장례관련 일체(개장등)

소중한 분이셨다면 특별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 24시간 무료상담 및 부산관내 무료이송*

(주)시민장례식장 | 24시간 무료상담 |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주)시민장례식장

화승

70

주년!

70년의 길을 걸어,
100년의 꿈을꿉니다.

| 화승 창립 70주년 축하 이벤트 |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화승이라는 이름, 화승의 70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3년 1월 16일~11월 30일까지

- * 인스타그램 팔로우, 70주년 엠블렘 인증샷 해시태그 게시.
- * 추첨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합니다.
- * 매월 70분께 기프티콘, 무료 초청공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화승의 70주년을 함께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화승 오피셜 (@hwaseung_official) 계정을 팔로우 한다

매월 진행되는 화승 오피셜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한다

다양한 상품도 받고 즐겁고 아름다운 공연도 관람하며 특별한 2023년을 함께한다



THE POWER OF ONE



BNK 가을야구 정기예금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원단위)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금융기관 및 별도 협약 시금고는 제외)

[가입기간] 12개월

[적용금리] 최저 연 3.35% ~ 최고 연 4.05% (2023.03.20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3.35%+우대이율 최대 0.7%p 모두 적용 시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만기(휴)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특판 기간] 2023.03.20 ~ 2023.05.31(단, 한도 1조원 초진 시 조기종료)

[우대이율항목]

- ① 롯데디자인즈 V3 가입 우대 0.2%p (모든 고객 적용)
- ②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 0.1%p
- ③ 포스트시즌 진출우대 최대 0.3%p
(최종순위 반영, 한국시리즈 우승 시 0.30%p, 플레이오프 진출(3위 이상) 시 0.20%p, 포스트시즌 진출(5위 이상) 시 0.10%p)
- ④ 신규고객 우대 (가입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p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 하시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